

# 光州日報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알레르기? ▶6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아시아서 느끼는 유럽 정취... 마카오 탐방 ▶13

kwangju.co.kr

불탑 연구서 펴낸 천득영 전남대 교수 ▶18



제19473호 1판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음력 3월 16일)



4·24 서울 노원 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가 24일 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선거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서 손을 흔들고 있다.

## “문화전당 법인화, 국가지원 범제화 서둘러야”

국회서 ‘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 토론회

### 문화전당 설립 운영법 제정도 시급 콘텐츠 구축 논의 아시아 중심으로

오는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법상 특수 법인화하고 국가 지원을 범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의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황승호 국민대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의 법·제도적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과 민주통합당 광주 시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황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의 허브로서 콘텐츠 협업을 통해 아시아인의 상호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법’을 제정하는 2가지 방안을 시사했다.

황 교수는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입법 절차가 용이하지만 한시법이라면 절 때문에 오는 2026년 이후 다른 조항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문화전당의 근거 조항만 남게 되는 입법체계의 불합리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문화전당 설립운영법을 제정하게 되면 특별법이 효력을 상실한다

고 해도 이 법이 별도로 존재해 입법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법 절차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가치 증진이라는 측면과 아시아문화예술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다 명확한 국가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부족한 콘텐츠 구축을 위한 논의가 광주와 한국 중심이 아닌 아시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축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며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 행위 ‘광주 중심’ ‘한국중심’ 등 차이

빼길 수 있는 문화 패권주의의 몫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예술기관은 탈중심주의와 탈 장르로 특징지어지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하며, 탈중심주의적 학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동반성장을 고려, 아시아가 함께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다문화의 통합과 다양한 문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원활한 콘텐츠 창작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과 김상호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박양우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 정우탁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등이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안철수 귀환... 여의도 긴장

4·24 재보선 노원병 60.5% 국회의원 당선  
부산 영도 김무성, 충남 부여·청양 이완구

새 정치의 상징으로 지난해 대선에 서 들떠온 일으켰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4·24 재·보궐선거에서 승리, 국회의원으로 정식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야권의 정치 지향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60.5% 득표율로 32.8%를 얻는데 그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5.7%, 통합진보당 정태홍 후보는 0.8%를 각각 득표하는데 그쳤다.

또 부산 영도의 경우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65.7%의 득표율로 22.3%를 얻은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를 크게 따돌리고 승리했다.

충남 부여·청양에선 89.7%가 개표(밤 11시20분 현재)된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가 77.3%의 득표율로 17.0%를 얻은 민주당 황인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김성기 후보가, 경남 함양군에서는 무소속 임창호 후보가 각각 군수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 결과로 새누리당의 석수는 152석에서 154석으로, 무소속은 6석에서 7석으로 각각 늘어났다. 민주당(127석)과 진보정의당(6석), 통합진보당(6석)의 의석 수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2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도의원 선거 1명, 기초 시·군·구 의회 선거 2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전패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여의도 입성과 새누리당 김무성·이완구 후보의 여의도 복귀는 지난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거치면서 고착화 된 현재 정치지향에 적잖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선 안 후보의 정치무

대 전면 등장이 정치적 유동성을 증대시키면서 ‘안철수 신당’ 가능성 등 야권 정치개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무성·이완구 후보의 여의도 복

귀는 여권의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쳐

야당은 물론 박근혜정부와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당선 확정 후 “저를 지지해 주신 노원 우권자 여러분 감사하다.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지선 후보와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허준영·정태홍·나기환 후보에게도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우선 지역 인사부터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마무리된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 투표 마감 결과, 국회

의원 선거 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41.3%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이날 곧바로 협약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

/박진표기자 jkpark@

정부의 영남 중심 경제개발 정책으로 나후의 대명사가 된 광주·전남이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내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 발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양혜령 백화포럼 공동대표는 생활 속 아이디어로 ‘고효율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집담회(集談會) ‘광주·전남 길을 묻다’에 참가한 지역 리더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정부

이 무조건 매달리지 말고, 지역 자체단체와 민간이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를 맡은 이건철 전남발전연 구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 정부의 지원은 덤이고, 자치단체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발전역량이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정부만 바라보는 지역은 쇠퇴하고, 민·관이 힘을 합해 지역 자체단체의 활동은 자체 스스로 고친다”는 의식으로 노력하는 지역만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광주·전남이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지금까지 지역발전에 침몰해온 민간분야의 리더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집담회도 지역 리더들이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생산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해 자발적으로 나서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원 출신으로 주부이며

서 치과의사이다. 사회활동가이기도 한 양혜령 대표는 일상적인 삶에

서 느낀 아이디어를 제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양 대표는 “광주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최고일 정도로 심각하며, 지난해에만 241억원

을 처리비용으로 쏟아부었다”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 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설치를 광주시가 예산으로 지원해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환경도 살리고, 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면서 “10만 가구 기준으로 연간 50억원 안팎의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 ~ 2013)



2013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Hwasun  
Healing Food  
Festival 2013

www.healingfood.me

2013. 5. 16(목) ~ 5. 19(일) [4일간]  
장소 :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

■ 분야별 행사 프로그램 (5개분야 68개 단위 행사)

- | 공식 행사 | 환영리셉션, 식전공연, 개막식, 축하공연
- | 경연공연행사 | 힐링요리경연대회, 힐링무대공연, 최고의 힐링푸드를 찾아라
- | 체험 행사 | 자가진단미로관, 힐링푸드스튜디오, 건강체험관 푸드컨설턴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키드존, 가장 긴 점심식사, 동물농장체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힐링푸드, 힐링푸드코트, 감성푸드, 블랙푸드, 탄광음식열차, 힐링푸드 주제관, 힐링가든 산책로 등
- | 전시판매행사 | 전국 등산대회, 한마음체조경연대회, Book 콘서트 등
- | 부대행사 | 전국 등산대회, 한마음체조경연대회, Book 콘서트 등

■ 주최 : 화순군 ■ 주관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